

# 鶴峯의 樓亭詩 研究

이정화\*

## || 차례 ||

1. 머리말
  2. 退溪學脈의 自然觀의 傳統과 樓亭詩의 繼承
  3. 樓亭詩를 통해 본 鶴峯의 詩精神
    - 1) 懷舊의 詠志
    - 2) 公人의 剛志
    - 3) 俠骨의 義氣
  4.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누정시는 景物詩 가운데서도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퇴계학맥을 창도한 퇴계의 경우, 實景을 묘사하는 敘景은 하지 않고,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드러낸 시편이 많다.

퇴계의嫡傳인 학봉의 누정시에서 寫景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가 바로 스승 퇴계와 같은 도학적 시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학봉의 누정시와 퇴계의 그것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학봉은 스승 퇴계가 시를 남겼던 누정에 올랐을 때의 감회를 읊은 次韻詩를 제작하였다.

또한, 학봉의 누정시에서는 公人意識과 치열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亂世를 잘 극복해보려는 지식인의 鬪志를 담아내기도 하는 등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公平無私한 삶의 片鱗은 宦路에서 제작된 누정시에서 찾아지는데, 「矗石樓一絕」을 제작하는 순간에 公人意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전임연구원

42세 때에 함경도 巡撫御史로 있으며 제작한 「登惠山鎮掛弓亭」, 「鎮戎樓」에서, 학봉의 정신은 지난날 이 지역에서 호령하였던 尹瓘, 金宗瑞 장군의 기개를 닮고 있다. 시 속에 투영된 그의 義血은 愛民意識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수자리하는 병사들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定平府次軒韻」에서는 국가를 위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는 一念이 邊方의 오랑캐를 향한 殺伐한 기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로써 보면, 학봉은 퇴계의 누정시에서 확인된 도학적 서정시의 경계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하겠다. 그의 시에는 스승을 닮으려는 溫柔敦厚한 資稟과 같을 찬 선비의 굳센 기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樓亭, 退溪學脈, 道學, 次韻詩, 公人意識, 現實認識, 關志, 義血, 愛民意識, 道學的 抒情詩, 溫柔敦厚, 退溪의 樓亭詩의 創造的 繼承

## 1. 머리말

주지하시다시피, 退溪 李滉에게서 學問을 전수받은 弟子들이 退溪學脈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주축이 되어 嶺南學脈이 더욱 昌盛해졌다. 鶴峯 金誠一(1538-1593)은 西厓 柳成龍과 함께 퇴계의 高足弟子로 알려져 있다. 특히, 퇴계선생을 친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학문을 전수받은 학봉의 시세계를 연구하는 작업은 퇴계학맥의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鶴峯詩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민중의 삶과 국토개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체적 시세계로 보는가 하면<sup>1)</sup>, 實踐儒學者의 詩精神을 바탕으로 한 憂國 愛民 戀君의 시로 파악했으며<sup>2)</sup>, 救國의 길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軍政改革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언급하였다.<sup>3)</sup> 또한, 학봉의

1) 申翼澈, 『鶴峯 金誠一의 詩研究-民族的 詩世界를 中心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8.

2) 金時晃, 『鶴峯漢詩研究-北征錄, 海槎錄을 中心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1.

시세계는 親親, 仁民, 愛物과 같은 人文精神에 입각한 것이어서, 학봉이 太平盛世를 이루려는 道文一致의 문학을 추구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4)</sup> 또, 학봉의 시는 학문에 대한 진지한 자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질고에 대한 동정, 중요한 폐단의 구체적 실상, 관료로서의 자성 등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하였다.<sup>5)</sup> 그리고, 학봉의 義理精神 역시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劍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데, 公義와 私利를 갈라 주는 표준이 되고 있으며, 결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sup>6)</sup>

누정시의 경우, 학봉 뿐만 아니라 퇴계학맥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 논저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들의 작품이 퇴계의 그것과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일은 퇴계학맥의 시문학의 특징을 탐색하는 것이 되므로, 본고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본고에서는 퇴계로부터 시작하여 及門弟子들에게 면면히 이어지는 퇴계학맥의 儒家的 詩精神을 연구하려는 일환으로, 먼저 학봉의 樓亭詩에 계승된 퇴계학맥의 自然認識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관료이면서 도학자로 살았던 작가의 시대정신과 삶의 궤적을 逆探하고자 한다.

## 2. 退溪學脈의 自然觀의 傳統과 樓亭詩의 繼承

儒家에서는 道를 근본으로 삼으면서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고 수양을 통한 인격적 순화를 중요시하였다. 儒者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의식의 磁場

3) 金時晃, 『鶴峯文學研究』, 영남사, 1998.

4) 金周漢, 「鶴峯 金誠一의 詩世界」, 『嶠南漢文學』 4, 교남한문학회, 1992

5) 呂運弼, 「鶴峯 金誠一의 삶과 詩」, 『韓國漢詩作家研究』 7, 한국한시학회, 2002

6) 宋載邵, 「鶴峯의 義理精神과 紀行詩에 나타난 劍의 이미지」,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으로 여겨졌던 것은 바로 自然이었다. 純粹, 素朴, 眞實 등의 절대적 가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관념하였던 자연현상들을 유지는 일상적 삶으로 접하면서 각박하다는 세속의 현실과 항상 대비하였고, 그래서 자연과 세속, 이상과 현실, 향촌과 도성 등 만족된 공간과 불만의 공간이라는 二元의 대립구조로 의식하였다.<sup>7)</sup> 이는 육체적 한계성을 전제로 하므로 철저히 정신만으로 달관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적 표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던 自然物은 종종 그 존재 자체에 인격을 부여하여 초월적 가치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퇴계의 경우에는 自然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자연 속에서 몸소 수양해야 한다고 보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비울 때 물아일체가 가능함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였다.<sup>8)</sup> 이러한 퇴계의 자연 인식은 곧 自然合一을 지향하는 사유태도이며, 이는 곧 급문체자들의 문학적 전통으로 계승되어, 溫柔敦厚한 퇴계의 시정신을 이어가게 된다.

퇴계는 다른 유가들처럼 원래 兼善하면서 학문하는 것을 理想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혼탁한 당대의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이상이란 것을 절감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귀거래 생활을 회구하게 된다. 그는 26세 때 「山居」시를 읊으며 그가 평생의 사업으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산수자연 속에서 학문하는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아아, 내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 질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은 없었지만, 다만 일찍부터 이 산림 사이에 즐거움이 있는 줄을 알았다. 중년이 되어 망령되어 세로에 나가 세상 풍진에 구르고 넘어져 나그네로 옮겨 다니다가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 후 나이가 들어 병은 점점 깊어지고 매사 발에 걸려 넘어지듯 하니,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세

7)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 관동출판사, 1990, 223-226면.

8) 拙稿, 『退溪詩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184면.

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관직에서 벗어나 발이랑에 본분을 세우니, 前日의 이른바 산림의 즐거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닿았노라.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쌓인 병을 낮게 하고 숨은 걱정을 확 풀어 버려, 늘 그막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를 버리고 또한 어디서 구할 것인가.<sup>9)</sup>

위에서 보면, 퇴계는 온갖 고난을 겪은 후, 어쩔 수 없이 산수자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山水之樂을 알았고 이로 인해 삶의 목표가 山林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신하와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벼슬살이를 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삶의 즐거움 역시 山水之樂에서 오는 것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책을 덮고 막대를 이끌고 나가 軒에 다다르고 연못을 구경하고 단에 오르고 마을을 찾으며 園圃를 돌아 약초 심고 숲을 뒤져 꽃도 따며 혹은 돌에 앉아 샘물도 통저 보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혹은 못돌 위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안에서 갈매기와 서로 친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대로 따라가서 소요하고 배회하며 눈길에 닿는 대로 흥이 발동하고 경치를 만나면 취미를 이루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오면 온 집이 고요하고 圖書는 벽에 가득하다.<sup>10)</sup>

위의 글은 퇴계가 晩年の 陶山 生活에서 터득한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山水之樂은 때때로 勝景地를 逍遙하며 그 아름다움을 玩賞하

9) 「陶山雜詠并記」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嗚呼，余之不幸，晩生遐裔，樸陋無聞，而顧於山林之間，夙知有可樂也。中年妄出世路，風埃顛倒，逆旅推遷，幾不及自返而死也。其後，年益老，病益深行益蹟，則世不我棄，而我不得不棄於世，乃始脫身樊籠，投分農畝，而向之所謂山林之樂者，不期而當我之前矣。然則余乃今所消積病，豁幽憂，而晏然於窮老之域者，舍是，將何求矣？”

10) 「陶山雜詠并記」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撥書攤節而出，臨軒翫塘，陟壇尋社，巡圃薜藥，搜林搨芳，或坐石弄泉，登臺望雲，或磯上觀魚，舟中狎鷗，隨意所適，逍遙恣適，觸目發興，遇景成趣，至興極而返，則一室岑寂，圖書滿壁。”

는 외적 체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산수자연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생활의 기반이 될 만큼 필수적인 대상이다. 그에게 학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학문과 자연이 그의 삶에 있어 긴밀한 틀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산수자연에서 학문에 심취하는 것이 진정한 山水之樂임을 보여주는 바, 이는 다음의 시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灑 흔디  
萬卷生涯로 樂事이 무궁하애라  
이등에 往來風流를 날어 므슴홀고<sup>11)</sup>

이 시조는 앞의 글에서 말한 퇴계의 山水之樂이 풍류정신에까지 의미의 확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산수 생활이 단지 자연물을 완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산수자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음풍농월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풍류정신도 함께 체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自然을 吟詠하는 景物詩의 일반적인 특징은 경치와 사물에 의탁하여 시인의 主意를 드러내는 것이다. 먼저 寫景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敍情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物象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퇴계의 경물시는 산수자연의 實景이 최소한의 시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눈으로 산수자연을 보면서, 心眼을 열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뜻을 밝혀내려 한다. 그는 경물과 시인 사이에 개재하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외경 자체를 꾸미거나 그것에 정감을 불어 넣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立象盡意’와 같은 基本

11) 「陶山六曲之二」其一 『退溪先生文集內集』 卷43.

律조차 돌보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은 그의 시 「隴雲精舍」이다.

## 농운정사

陶弘景의 隴上 구름 언제나 사랑했는데  
스스로 즐길 수 있을 뿐 그대에게 보내지 못하네.  
늦으막에 집을 지어 그 가운데 누웠더니  
閒情의 절반은 野鹿(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네.

## 隴雲精舍

常愛陶公隴上雲  
唯堪自悅未輸君  
晚來結屋中間臥  
一半閒情野鹿分<sup>12)</sup>

이 작품은 「陶山雜詠 十八絶」 가운데 하나다. 隴雲精舍의 實景은 전혀 말끝에 올리지 아니하고 陶弘景(梁나라 道家)의 詩情을 연상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을 뿐이다.

퇴계의 樓亭詩에 있어서도, 實景을 묘사하는 敍景은 하지 않고,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드러낸 시편은 매우 많다. 그는 직접 樓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實景을 조망하게 될 때에도, 있는 그대로의 外景을 그려낸 다거나, 자연의 흥취를 읊조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담겨진 불변의 이치를 확인하는데 마음을 썼다.

누정시는 경물시 가운데서도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누정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을 좋아하므로, 背山臨水의 勝地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누정의 기능은 시인묵객들에게 완상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퇴계에게 누정은 이러한 通俗과는 먼 거리에 있다. 누정과 주변경관은 遊賞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觀照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景濂亭」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12) 「陶山雜詠 十八絶 七言」其七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 경렴정

풀에는 한결같은 뜻이 있고  
 시냇물은 끝없는 소리를 머금고 있네.  
 流浪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씻은 듯이 깨끗한 한 정자일세.

## 景濂亭

草有一般意  
 溪含不盡聲  
 遊人如未信  
 蕭灑一虛亭<sup>13)</sup>

景濂亭은 紹修書院 입구에 있는 亭子다. 이 작품 「景濂亭」은 지금도 이 亭子에 편액으로 걸려 있다. 이 亭子和 周邊 景觀을 꾸미는 일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자신과 풀, 그리고 시냇물에 함께 내재하는 '理'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 3. 樓亭詩를 통해 본 鶴峯의 詩精神

前言한 바와 같이, 퇴계학맥을 창도한 퇴계의 누정시에서는 實景을 묘사하는 敘景은 하지 않고,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드러낸 시편이 많다. 퇴계는 자연의 흥취를 읊조리기 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담겨진 불변의 이치를 확인하는데 마음을 썼다. 학봉의 누정시에서 寫景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가 바로 스승 퇴계와 같은 도학적 시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학봉의 누정시와 퇴계의 그것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학봉의 누정시에서는 公人意識과 치열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亂世를 잘 극복해보려는 지식인의 鬪志를 담아내기도 하는 등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학봉은 퇴계의 누정시에서 확인된 도학적 서정시의 경계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였으므로, 그의 시에서는 스승을 닮으려는

13) 『退溪先生文集別集』 卷1.



溫柔敦厚한 資稟과 칼을 찬 선비의 굳센 기상이 공존하게 된다.

### 1) 懷舊의 詠志

학봉은, 스승 퇴계가 시를 남긴 누정에 올랐을 때의 감회를 읊은 차운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자연은 변함없이 옛 성현들이 애호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尙古의 정신을 되새기는 수양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故人이 된 스승을 회고하며, 스승이 예전에 登樓하며 逍遙했던 자연에 정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힘써 스승의 遺志를 따르고 싶은 간절한 情意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이때에는 尙古에 뿌리를 둔 溫柔敦厚의 시정신을 계승하려는 意趣로 충만해 있다.

이락루에서 퇴계선생의 운에 차하여

시냇물에 끊임없이 옥 무지개 흐르는데  
 시냇가에 어느 해에 이 누각을 지었는가.  
 눈 덮인 길 가늘게 단조협과 통해 있고  
 인가(人家)는 새들 나는 강 가까이 터 잡았네.  
 유선(儒仙) 한번 떠나가자 그 풍모 아득한데  
 나른한 객 다시 오니 땅 다시 그윽하네.  
 난간에 기대 앉아 당시의 자취 찾고 싶으나  
 무성에 현가 끊겨 시름 금치 못하겠네.

二樂樓次退溪先生韻

長川滾滾玉虹流  
 川上何年構此樓  
 雪徑細通丹竈峽  
 人家近住白鷗洲  
 儒仙一去風何遠  
 倦客重來地更幽  
 憑檻欲尋當日迹  
 武城絃斷不勝愁<sup>14)</sup>

이 시는 퇴계의 「次二樂樓韻」을 차운한 것이다. 그 原詩를 보면, “大水雄吞小水流, 四山嵐翠撲紅樓. 風生絕壁涼虛簾, 雨罷歸雲豁遠洲. 坐久不知簷日側, 吟餘更覺洞天幽. 舊聞動靜皆天理, 莫遣胸中著許愁.”로 되어 있다. 原詩에서 퇴계는 古來로 사람들이 樂山과 樂水하는 까닭은 바로

14) 「二樂樓次退溪先生韻」 『鶴峯先生文集續集』 卷1.

거기에서 動靜의 이치를 깨닫기 때문이며, 이것이 곧 天理의 작용임을 확인하였다. 天理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세상의 현실을 개탄하는 퇴계는 결국 愁心을 吐露하였다. 차운시의 意想은 “儒仙”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 날 퇴계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담소하는 모습을 읊은 「二樂樓 次東坡黃樓詩韻」의 意趣와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退溪詩에서는, 신선이 퇴계에게 세상만사가 모두 현신짜처럼 버려도 좋을 만큼 헛된 것이니, 남들처럼 부화뇌동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라고 충언한다. 또한 그 신선은 隱士 기공빈을 예로 들며, 淸貧好學하던 그가 塵世 일의 괴로움을 깨달아, 몸을 감추고 修飾한 일을 본받으라고 유도하기까지 한다. 퇴계 또한 시속에 阿諛하는 체질이 아님을 자인하고, 환로로부터 떠날 것을 도모하려 한다. 퇴계는 어디에 있는지 名分과 教化를 위해 心法으로 삼가는 것이 마음의 樂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는 二樂樓에서 마음의 樂을 생각하고 있었다. 15)

학봉 또한 이락루에 오르게 되자, 퇴계처럼 風光明媚한 산수자연을 대하면서 이곳이 곧 속세의 때문은 마음을 씻어 줄 脫俗의 공간, 즉 仙界이기를 회구하고 있다. 학봉은 여기가 바로 신선처럼 天真無垢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세계임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首聯, 頷聯에서 나타나는데, 한 폭의 산수화를 펼쳐 놓은 것처럼 寫景하고 있어서 詩中有畫의 妙를 갖추고 있다. 頸聯에서 학봉은 퇴계를 한마디로 ‘儒仙’이라 격찬하였는데, 그 까닭은 온갖 욕망으로 들끓기 쉬운 마음, 세속적 욕망을 비운 채 다만 자연물을 벗삼아 수양했던 퇴계의 삶을 숭앙하였기 때문이다. 학봉은

15) 「二樂樓 次東坡黃樓詩韻」 『退溪先生文集內集』 卷1.

夜臥群齋淸, 夢作遊山詩. 晨登溪樓敞, 對山吟古詞. 赤城山中仙, 遊天弄雲機. 貽我黃精草, 約我勿差池. 萬事一弊屨, 胡爲學詭隨? 已呼祈孔賓, 莫訝朱桃椎. 我非戀塵土, 亦非媚俗姿. 淹茲久不決, 我車何時脂? 吾聞名教中, 心法謹毫釐. 二樂如得樂, 此外吾何知.

이러한 스승과 함께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所懷를 尾聯에서 드러내는데, '武城絃斷'으로 지난 날 師弟間的 以心傳心을 나타내고 있다.

퇴계선생의 선몽대 운에 삼가 차운하여	敬次退溪先生仙夢臺韻
넓다란 솔그늘이 푸른 허공 가렸으니	半畝松陰倒碧虛
술 마시는 오늘의 그 흥이 어떠한가.	玉壺今日興何如
그대 인해 유선(儒仙)의 시구 다시 들으니.	憑君更聽儒仙句
진세(塵世)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사라짐을	便覺塵緣立地踈 <sup>16)</sup>
깨닫겠네.	

이 시는 퇴계의 「寄題仙夢臺」를 차운한 것으로, 原詩는 “松老高臺插翠虛, 白沙青壁畫難如. 吾今夜夜憑仙夢, 莫恨前時珍賞踈.”로 되어 있다. 퇴계는 작시할 때, 선몽대의 勝景을 玩賞할 수 없었으므로, 단지 詩題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仙夢”에 투영하여, 꿈속이나마 그곳에 가서 노닐어 본다고 敘懷하고 있다. 학봉의 시에서 나타나는 清雅한 雅趣는 이처럼 原詩의 仙趣를 취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봉은 原詩에 등장하였던 “松(소나무)”을 시의 제재로 사용하여, 선몽대 風光의 핵심이 되는 대상으로 묘사하였다. 돌 하나도 단순히 돌로만 대하지 않고, 풍경으로 바라보고 음미하는 것이 바로 동양인의 마음인 바<sup>17)</sup>, 위의 시에서 학봉은 “松”으로써 스승의 清雅한 기상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학봉은 이 시에서도 역시 스승의 이미지를 “儒仙”에 담아 稱揚하였다.

취원루

聚遠樓

부석사(浮石寺)는 명찰(名刹)로 알려져 있지만 浮石知名寺

16) 「敬次退溪先生仙夢臺韻」, 『鶴峯先生文集續集』, 卷1

17) 金原省吾(閔丙山 譯), 『東洋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89. 161면

깊은 곳 찾아가자니 갈 길이 멀구나.	幽尋去路遙
구름 낀 산 태백산에 잇닿아 있고	雲山連太白
절 기둥은 신라 때 세운 거라네.	棟宇自羅朝
들풀 속에 이끼낀 비석 넘어져 있고	野草苔碑臥
고찰(古刹)에는 공양하는 촛불 꺼졌네.	塵龕佛火消
황혼녘에 옛 생각이 많이 나는데	黃昏多古意
숲 속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	林雨又蕭蕭 <sup>18)</sup>

일찍이 퇴계는 浮石寺에 枉臨하여 「浮石寺聚遠樓 鄭湖陰贈僧韻」을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鬼役天成萬古樓, 風雲一任洗新秋. 夜深獨對高僧榻, 唯見長空月似鉤.」로 되어 있다. 위의 시에서 학봉은 퇴계시를 차운하지는 않았지만, 스승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古意”를 떠올리고 있다.

이 시에서는 퇴계시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학봉 역시 寫景은 돌보지 않고 寫意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봉은 意在言外의 경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시의 중심에 놓인 “浮石寺”를 頷聯에서는 웅장한 신라문화의 현장으로 묘사하다가, 다시 頸聯에 이르러서는 스러져가고 있는 古刹의 殘滅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 두 연이 서로 대조적인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곳의 과거와 현재의 전경을 오버랩시키면서 쓸쓸한 심정을 倍加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杜甫詩에서도 자주 보이거니와, 예로부터 시의 경지를 높이 평가받은 작품에서 나타난다.<sup>19)</sup>

## 망운대

소년 시절 발자취가 외론 성에 남아 있어  
마음먹고 산 오르니 변방 해가 흰하다.

## 望雲臺

少年蹤迹在孤城  
作意登山塞日明

18) 「聚遠樓」『鶴峯先生文集續集』卷1.

19) 斯波六郎(尹壽榮 譯), 「중국문학속의 융합성」, 『中國文學속의 孤獨感』, 東文選, 1992. 290면.

성곽 밖엔 인가가 띄엄띄엄 하다 다시 뻣뻣하고.	郭外人居疎復密
해문에는 신선 섬이 솟았다가 다시 평평하네.	海文仙島斷還平
솔 소리는 저녁나절 웅장한 파도 소리 띄고	松聲晚帶濤聲壯
산빛은 아침나절 맑게 개인 들빛에 연해 있네.	山色朝連野色晴
이곳은 그리워하는 형제들이 읊조리며 바라보는 곳	最是鵲原吟望處
이런 때에 고개 돌려 바라보니 다시 옥관정(玉關情)	此時回首更關情 <sup>20)</sup>

일세.

한시에서는 대체로 人生의 道理와 宇宙의 理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거니와, 換言하면, 작가에게 인격적인 수양과 상당한 수준의 人生境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또, 이 말은 작가가 마음에 간직해둔 윤리적이면서도 정감적인 眞理를 작품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을 뜻한다.<sup>22)</sup>

학봉은 소년시절의 추억이 서린 공간에 登樓하여, 멀리 타관살이를 떠난 형제를 그리워하던 옛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이시의 首聯, 頷聯, 頸聯에 나타나는 망운대의 風光도 역시 형제간의 情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므로, 尾聯의 배경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 2) 公人の 剛志

학봉의 생애를 관통하는 가치관은 바로 先公後私의 精神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신은 비단 환로생활에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체득된 것이었다. 흥원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만형 金克一을 따라 갔을 때, 성안에 불이 나자, 모두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에 그는 홀

20) 「望雲臺」 『鶴峯先生文集』 卷1

21) 李尙祐, 『東洋美學論』, 시공사, 1999, 161면

22) 周來祥(南錫憲·魯長時 옮김), 『中國古典美學』, 미진사, 2003, 277면

로 책상자를 등에 지고 殿牌를 받들고서 피신하였다고 한다. 이를 본 김극일은 “기특하구나. 내 동생은 반드시 학문을 독실히 하고 忠愛하는 마음이 두터운 선비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의 公平無私한 삶의 片鱗들은 宦路에서 지은 누정시에 보이기도 한다.

축석루에서 지은 절구 한 수

축석루 위의 세 장사(壯士)

한 잔 술로 웃으면서 장강의 물을 가리키네.

장강의 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니

물 마르지 않는 한 우리 넋도 안 죽으리.

矗石樓 一絶<sup>23)</sup>

矗石樓中三壯士

一杯笑指長江水

長江之水流滔滔

波不渴兮魂不死<sup>24)</sup>

학봉은, 返命할 때 한 말이 國亂을 초래했다는 조정의 여론에 휩싸여, 宦路에서 탄핵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柳成龍 등의 도움으로 招諭使로 落南한다. 즉, 그에게 倭寇를 물리치고 민심을 진정시키라는 임무가 부여된다. 그가 진양에 도착했을 때, 軍民은 물론 牧使마저도 피하여 성 안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을 目睹하게 된다. 將帥들마저 그에게 적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학봉과 함께 강물에 投身하는 것이 낫겠다며, 자결하기를 도모하자, 학봉도 또한, 위의 시를 읊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자결은 헛된 죽음이라 생각하고 이를 단념하였다. 李象靖은 「龍蛇日記」의 跋文에서, 위의 시를 암송할 때마다 비분강개하게 되며, 또 감격하게 되어

23) 李載浩는 「龍蛇日記」를 근거로 하여, 이 시의 작가는 崔慶會가 아닌, 鶴峯 金誠一이 분명함을 확인하였고, 三壯士도 金誠一, 趙宗道, 李魯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즉, 그는, 「龍蛇日記」는 松巖 李魯가 그 당시 눈으로 직접 보고 쓴 實錄이란 점에서, 後日의 傳聞에 의거해 쓴 記錄文籍들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李載浩, 「歷史記錄의 虛實에 對한 檢討-특히 矗石樓 '三壯士詩' 作者의 境遇」,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358-360면)

24) 「矗石樓 一絶」 『鶴峯先生文集』 卷2.

학봉의 인격을 흠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였다. 학봉은 투신할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오로지 公平無私한 公人の 삶 속에서 培養된 忠魂, 丹心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의 선비정신이 肉身을 草芥와 같이 여겼음은 물론이다. 轉句의 “長江之水流滔滔”는 퇴계의 樓亭詩 「矗石樓」의 “入眼長江萬古流”<sup>25)</sup>에서 그 意想을 따온 것이다.

### 압구정

한평생을 명리(名利)때문에 작은 것만 따졌으니  
그 많은 간교한 마음을 너는 알고 있으리라.  
헛된 이름 가지고서 세상에 자랑 말게  
흰 갈매기 사람에게 원래 속지 않는다네.

### 狎鷗亭

一生名利較銖銜  
多少機心爾自知  
莫以虛名誇末俗  
白鷗元不被人欺<sup>26)</sup>

「行狀」에 의하면, 학봉은 남달리 총명하였으므로, 여러 아이들과 놀 때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던 바, 뜻에 맞지 않은 일이 있으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는 “장차 훗날 반드시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세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차후에 그는 御前에서 과감하게 諫하며 탄핵을 주청하기도 하였으므로, 일명 ‘展上虎’라고 불리었다. 위의 시에서도 학봉은, 韓明澮가 지은 정자에 올라, 忠言逆耳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자신은 물론 世人들에게 名리를 좋아하지 말라고 忠告하고 있다. 公人인 학봉 자신이 名리를 붙좃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위의 시에서 학봉은, 퇴계가 압구정에 올라 읊은 누정시 「與諸君同登狎鷗亭後岡」<sup>27)</sup>의 意趣를 되새기고 있다. 퇴계시에서는 富貴榮華가 南柯一

25) 「矗石樓」, 『退溪先生文集內集』. 卷1 「落魄江湖知幾日, 行吟時復上高樓 橫空飛雨一時變 入眼長江萬古流 往事蒼茫果鶴老, 羈懷搖蕩野雲浮 繁華不屬詩人料, 一笑無言俯碧洲」

26) 「狎鷗亭」, 『鶴峯先生文集』. 卷1.

夢에 지나지 않으니, 세속적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퇴계와 학봉은 각각 “沙禽(모래톱의 갈매기)”, “白鷗(흰 갈매기)”를 제재로 하여,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진정한 자연합일이 가능함을 일깨워주었다. 이는 『列子』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 중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갈매기와 어울려 노닐며 즐거워하곤 하였다. 여기에 날아드는 갈매기 수는 백 마리가 넘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내가 듣자니 갈매기가 모두 너와 한 패가 되어 노닌다고 하니, 갈매기 한 마리를 잡아다 주렴. 나도 데리고 놀고 싶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튿날, 바닷가에 나가보니 갈매기는 바다 위를 빙빙 돌뿐 날아들지 않았다.<sup>28)</sup>

위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과 합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우는 글이다. 그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자연은 인욕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白鷗”와 같은 자연물을 대할 때에도 항상 人慾이 배제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봉황대에 있는 시의 운에 차하여

하늘에는 바다 뜨고 바다에는 하늘 담겨

천리 먼 부상땅이 한 길로 통해 있네.

아득한 조그만 땅 접역의 밖에 있고

次鳳凰臺韻

天浮滄海海涵空

千里扶桑一路通

渺渺彈丸鰈域外

27) 「與諸君同登狎鷗亭後岡」 『退溪先生文集內集』 卷1. “斷阜瀕江勢欲騫，與君登眺暢形魂。浮雲遠堞齊神嶽，落日低空近海門。萬世經營槐穴夢，一時感慨菊花罇。沙禽豈管人間事，浩蕩風流無語言。”

28) 『列子』 卷二 「黃帝」 第二. “海上之人，有好鷗鳥者。每旦之海上，從鷗鳥遊。鷗鳥之至者，百數而不可止。其父曰，‘吾聞，鷗鳥皆從汝遊，汝取來，吾玩之。’明日之海上，鷗鳥舞而不下也。”



흐릿한 울타리는 골나무 숲 속에 있네.	依依籬落橘林中
들 절에서 해 넘길 땐 소식이 끊겼는데	經年野寺聲音別
이 밤에는 높은 대서 웃으며 말하누나	此夜高臺笑語同
소무(蘇武)의 사신(使臣) 깃발 아직 안 해졌으니	蘇武節旄猶未落
가인(家人)은 나의 머리 꼭대같다 하지 마라.	家人休道首如蓬 <sup>29)</sup>

이 시는 「海槎錄」에 입록된 것인데, 학봉이 53세(1590년) 때에 日本通信副使로 건너가 往還中에 제작되었다. 위의 시에서는 先景後情의 기법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가운데 일본 열도에 대한 지리적인 낯설음과, 정녕 변치 않을 忠節을 읊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의취는 蘇武처럼 忠直한 節義로써 使行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이라 할 수 있다. 蘇武는 漢나라 武帝때의 사람인데, 匈奴에 使臣으로 갔다가, 19년간 抑留되어 있을 때 겪었던 波瀾많은 삶을 節操를 지키며 堪耐하였다.

이 시에서 “節旄”는 제재로 쓰였는데, 이것은 符節(使臣의 標識)에 부착된 裝飾品이다. 尾聯에서는, 蘇武가 스스로 使臣임을 잊지 않기 위해, 符節을 항상 들고 다녔으므로, 裝飾이 다 떨어졌다는 古事를 근거로 하여 빌어 쓴 것이다. 특히, 李白의 「蘇武」<sup>30)</sup> “蘇武在匈奴, 十年持漢節.”에서 그 意想을 취한 것이다.

## 문수대

땅은 단지 속에 펼쳐져 있고  
 암자는 골짜기 형세 따라 서 있네.  
 외로운 구름 펼쳐졌다 다시 감기고

## 文殊臺

地入壺中關  
 菴隨壑勢開  
 孤雲舒又卷

29) 「次鳳凰臺韻」 『鶴峯先生文集』 卷2.

30) 「蘇武」 『李太白全集』. “蘇武在匈奴, 十年持漢節. 白雁上林飛, 空傳一書札. 牧羊邊地苦, 落日歸心絕. 渴飲月窟水, 飢餐天上雪. 東還沙塞遠, 北擅河梁別. 泣把李陵衣, 相看淚成血.”

한 마리 학 춤을 추다가 다시 돌아오네.	獨鶴舞還回
고요한 밤 쏟아지는 폭포 소리 듣다가	靜夜聞飛瀑
신새벽에 푸른 이끼 깔고 앉았네.	暄晨坐綠苔
곰곰이 생각하니 명리 좇는 객	細思名利客
허둥댐이 정허나 애처롭구나.	僕僕政堪哀 <sup>31)</sup>

「行狀」에 의하면, 학봉은 제자들에게 일깨우기를, “德性을 함양하고 私慾을 이겨내는 공부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학자라고 하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공통된 걱정거리다. 이것은 싹을 기른다고 하면서 복돋아 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김매기를 일삼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 하였다.

私利私慾부터 배제해야 聖賢의 학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 그의 公平無私한 생활 철학은 위의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孤雲”, “獨鶴”의 悠悠自適한 모습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名利客”의 惶忙한 모습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봉은 宦路에서도 高尚한 雅趣를 지니며 살아가기를 희구하였으리라 사료된다. 이 시에서는 揚洲鶴의 古事를 근거로 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상한 기품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 3) 俠骨의 義氣

학봉의 自尊意識은 학자적 양심에 뿌리를 둔 것이기도 하다. 학봉은 굳센 기상을 지녔으므로, 그의 자존의식을 자신의 마음-小我的 空間-에만 간직한 채 학자적 양심을 墨守하는 것으로 一身을 보존하지 않았다. 여기에

31) 「文殊臺」 『鶴峯先生文集』 卷1

그의 애국심이 작용하여, 그의 자존의식은 국가라는 大我的 空間으로 확대되었고, 對日外交는 물론 國政 諸般에서 국가의 자존권, 자주권을 지키려고 孤軍奮鬪하게 된다. 학봉은 國力이 강대하지 않으면 곤궁한 백성이 살 수 없다는 치열한 현실인식을 시화하기도 하였다.<sup>32)</sup> 그의 시에서는 마치 刺客를 연상케 하는 俠骨의 기개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칼을 찬 선비의 心思를 敘懷하고 있다.

혜산진에 있는 패궁정에 올라

열흘 동안 먼 변방 길을 다니며  
쌓인 눈 속에서 시름 읊는다.  
백두산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청해 땅은 이제 막 끝이 보이네.  
오랑캐들 항상 보루 틈 엿보는데  
파리한 군사는 활을 팔에 걸었네  
어느 때나 한 정자 위에 올라가  
준조에서 오랑캐들 평정을 하나

登惠山鎮掛弓亭

十日行窮徼  
愁吟積雪中  
白頭山漸近  
青海地將窮  
驕虜長窺障  
疲兵尙臂弓  
何時一亭上  
樽俎坐平戎<sup>33)</sup>

위의 시는 「北征錄」에 수록되었는데, 학봉이 42세 때에 함경도 巡撫御史로 재직하면서 제작되었다. 변방을 수호하는 그의 모습은 지난날 이 지역에서 호령하였던 尹瓘, 金宗瑞 장군의 기개를 닮고 있다. 시 속에 투영된 義血은 愛民意識과 관련된 것이다. 그의 시에 비친 변방은 오랑캐가 호시탐탐으로 노려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또한, 그는 수자리하는 병사들의 지친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여준다. 이는 “愁吟”하게 된 원인에는 “疲兵”에 대한 憐憫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오랑캐를 平定하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므로, 이것이 바로 지금 학봉에게는

32) 「母別子」『鶴峯先生文集』卷1.

33) 「登惠山鎮掛弓亭」『鶴峯先生文集續集』卷1

가장 시급한 임무임을 확인하고 尾聯에서 忠義를 다짐하고 있다.

학봉의 문인들은 스승의 毅然한 기상을 문집 곳곳에 기록한 바 있다. 그 가운데 鄭侗의 제문을 보면, 그는, “異域에서 使節을 맡았을 때에도, 蠻夷가 두려워 복종하였고, 狂寇가 그 기세 漲溢하여, 강남이 위태로웠을 때에는, 명을 받들고 눈물을 씻으며, 창을 잡고 戰征에 오르니, 忠肝, 義膽이 해와 별같이 비치고 초목이 변색하였다. (...) 어느 것이나 모두 학문으로부터 미루어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찍이 도산 문하에 수학하여, 敬을 위주로 그 本을 세우고, 義를 정하게 하여 그 用을 다스렸다.”고 하였다.

#### 진용루

문루는 높이 솟아 높은 성을 높였기에  
오랑캐와 중국 땅 한눈에 다 들어오네.  
황초령의 강 흐름은 압록강에 조화하고  
백두산의 산 형세는 파봉에게 공수하네.  
피곤한 군사들은 날 저물면 북 울리고  
오랑캐는 가을 되면 칼과 활을 시험하네.  
무장이 공을 탐내 혼단을 야기했는데  
누가 웅략을 가지고 요충을 진압하나.

#### 鎭戎樓

譙樓高起壓崇墉  
夷夏提封一望中  
黃草江流朝鴨水  
白頭山勢拱琶峯  
疲兵日暮鳴鼙鼓  
驕虜秋來試劍弓  
武弁貪功邊釁起  
誰將雄略鎭要衝<sup>34)</sup>

위의 시를 보면, 학봉은 결코 思辨의인 학문에 머물렀던 학자가 아니라, 知行合一을 지향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시대보다는 학봉의 시대가 좀더 치열한 현실적 대응력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의 진취적인 기상도 작용하여, 그는 聖學으로 修己와 治人을 동시에 실현하고, 나아가 국왕을 보좌하여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완벽하게 이룩할 수 있는 實踐의 儒者가 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仁義

34) 「鎭戎樓」 『鶴峯先生文集續集』 卷1

의 학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활약하는 것으로 인의의 학문을 실천하는 본모기를 보였다. 이 시도 역시 「北征錄」에 수록된 것인데, 황초령의 험준한 요새에서 변경의 방위 태세를 점검하며 머물렀던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국난을 평정하여 수 자리하는 병사들을 고달픈 생활로부터 구제하는 길은 先世에 무공을 세웠던 장군들의 雄略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 절실한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정평부에서 현에 걸려 있는 시의 운을 차운하다 定平府次軒韻

북쪽 변경 바닷가를 멀리 유람해	遠遊關海上
상봉(桑蓬)의 장한 뜻을 내 이루었네.	壯志償桑蓬
몸은 칼날 같이 높은 산에 의지해 있고	身倚峒峒劍
현(軒)은 넓은 사막 바람에 기대어 있네	軒憑廣漠風
날린 모래 철마 향해 부딪쳐 오고	驚沙衝鐵馬
살기(殺氣)는 변방의 기러기 향해 뻗치네	殺氣趁邊鴻
나라에 바친 마음 아직 붉은데	許國心猶赤
양쪽 뺨의 붉은 빛은 쇠해지네.	從凋兩臉紅 <sup>35)</sup>

이 시는 「北征錄」에 수록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는 내용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이 시에서 학봉은 丈夫의 義血을 處處에 드러내고 있다. “壯志”는 학봉의 心志를 뜻한 것인 바, 이는 “桑蓬(뽕나무 활과 쭉대 화살)”, 즉, 천하를 경락하고자 하는 큰 뜻을 일컫는다. 학봉이 변방을 巡撫하고 다니며 이룩한 뜻은 바로 忠義를 실천하는 것이다. 尾聯의 “心赤”에서 보여준 一片丹心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峒峒劍

35) 「定平府次軒韻」, 『鶴峯逸稿』, 卷1

(칼날 같이 높은 산)”은 곧 그의 義氣衝天한 마음을 빚댄 것이며,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頸聯으로까지 이어져, 邊方을 생각하면서 殺伐한 기상을 곧 두세우고 있다.

#### 4. 맺음말

누정시는 景物詩 가운데서도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누정은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을 좋아하므로, 背山臨水의 勝地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누정의 기능은 시인묵객들에게 玩賞의 공간으로 제공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다. 퇴계의 경우, 實景을 묘사하는 敘景은 하지 않고,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드러낸 시편이 많다.

학봉의 누정시에서 寫景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가 바로 스승 퇴계와 같은 도학적 시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이것이 학봉의 누정시와 퇴계의 그것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학봉은 스승 퇴계가 시를 남긴 누정에 올랐을 때의 感懷를 次韻詩에 담았다. 즉, 「次二樂樓韻」, 「敬次退溪先生仙夢臺韻」에서는 故人이 된 스승을 회고하며, 스승이 예전에 登樓하며 逍遙했던 자연에서 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힘써 스승의 遺志를 따르고 싶은 간절한 情意를 표출하고 있다. 이때에 그의 시는 스승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뜻으로 충만해 있다. 이것이 바로 尙古에 근거를 둔 溫柔敦厚의 詩精神인 것이다. 또, 스승과의 추억을 回想한 「聚遠樓」라든지, 어린 시절을 回憶한 「望雲臺」에서도 이러한 시정신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학봉의 누정시에서는 公人意識과 치열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亂世를 잘 극복해보려는 지식인의 鬪志를 담아내기도 하는 등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의 公平無私한 삶의 片鱗은 宦路에서 제작된 누정시에서 찾아지는데, 「矗石樓 一絕」을 제작하는 순간에 公人意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狎鷗亭」, 「文殊臺」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公人인 학봉 자신이 名利를 불쫓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 그가 일본에서 「次鳳凰臺韻」을 제작하였을 때에도, 蘇武의 정신을 본받아, 忠直한 節義로써 使行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42세 때에 함경도 巡撫御史로 있으며 제작한 「登惠山鎮掛弓亭」, 「鎮戎樓」에서, 학봉의 정신은 지난날 이 지역에서 호령하였던 尹瓘, 金宗瑞 장군의 기개를 닮고 있다. 시 속에 투영된 그의 義血은 愛民意識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수자리하는 병사들의 지킨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定平府次軒韻」에서는 국가를 위해 한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는 一念이 邊方의 오랑캐를 향한 殺伐한 기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로써 보면, 학봉은 퇴계의 누정시에서 확인된 도학적 서정시의 경계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하겠다. 그의 시에는 스승을 닮으려는 溫柔敦厚한 資稟과 칼을 찬 선비의 굳센 기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자료

『(增補) 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鶴峯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

列禦寇 撰, 『列子』, 中華書局, 1985.

王 琦 注, 『李太白全集』, 中華書局, 1990.

### ■ 저서 및 논문

金時晃, 『鶴峯漢詩研究-北征錄, 海槎錄을 中心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1.

\_\_\_\_\_, 『鶴峯文學研究』, 영남사, 1998.

金原省吾(閔丙山 譯), 『東洋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89.

金周漢, 「鶴峯 金誠一의 詩世界」, 『嶠南漢文學』4. 교남한문학회, 1992.

斯波六郎(尹壽榮 譯), 「중국문학속의 융합성」, 『中國文學속의 孤獨感』, 東文選, 1992.

成樂喜,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 관동출판사, 1990.

宋載邵, 「鶴峯의 義理精神과 紀行詩에 나타난 劍의 이미지」,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申翼澈, 『鶴峯 金誠一의 詩研究-民族的 詩世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8.

呂運弼, 「鶴峯 金誠一의 삶과 詩」, 『韓國漢詩作家研究』7, 한국한시학회, 2002.

李尙祐, 『東洋美學論』, 시공사, 1999.

李載浩, 「歷史記錄의 虛實에 對한 檢討-특히 蠹石樓 ‘三壯士詩’ 作者의 境遇」,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李貞和, 『退溪詩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3.

周來祥(南錫憲·魯長時 옮김), 『中國古典美學』, 미진사, 2003.

논문투고일 : 2003. 12. 23 심사시작일 : 2004. 1. 6 심사완료일 : 2004. 1. 18



Abstract

A Study on the arbor poetry of Hak-bong

Lee, Jeong-Hwa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ak-bong poetry considering a scholar-official poet of 16C in Joseon. Generally he was a accomplished scholar as **study of human nature(性理學)**.

This paper is an attempt to illustrate the poetic spirit of Hak-bong.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starts from the view of life. We can find the fact that his personality is based on the practical knowledge of Toegye.

The arbor poetry of Toegye reveals a remark full of meaning, having no concern with poetical title. Hak-bong were inclined to approach him from the Cha Woon of Toegye poetry

The arbor poetry of Hak-bong embody the truth of life, and exhibit the sympathy of the poor. His poetry expresses his poetical words suggest that he reveals the recognition of reality

**Key Word**

a scholar-official poet, study of human nature, the poetic spirit, the moral poetry, the truth of life, the sympathy of the poor, the recognition of reality